

청주, 그곳
Cheongju City

청주, 그곳 Cheongju City

발간등록번호
73-5710000-000226-01

청주, 그곳
Cheongju City



청주, 그 곳
Cheongju City





책장을 열며

추억이 아련한 것은 누구나 지금,
그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아무도 그 때로 다시 돌아 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기억을 살려내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유용한 것은
역시 사진입니다. 빛바랜 사진 속 그 시절 풍경과
그때 인물들이 오롯이 자신을 그 시절로
데리고 갑니다.

이젠 없는 거리 모습, 낯선 옷차림의 옛사람들,
낡은 건물들, 나무들이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옛 기억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우리 청주가 가야 하는 미래도시 청주를 가늠하게 합니다.

이렇듯 대비되는 사진들로 소환된 과거가
이야기꽃들로 이어 피어나고
청주를 사랑하는 따뜻한 불씨로 피어
오래 남겨지길 기원합니다.



01	청주시청	10
02	성안길 중앙로	22
03	옛 청주 경찰서	40
04	청주대교 서문교	50
05	상당공원	68
06	남문로 우리은행	82
07	청주약국	90
08	육거리	98
09	철당간과 그 주변	114
10	중앙시장과 청소년광장	124
11	옛 청주역	134
12	중앙공원 일대	144
13	충북도청	160
14	우암동	172
15	내덕동	180
16	사직동	188





01 / 청주시청



Cheongju City



2021년



1977년

상당로

196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외곽주택지가 여기저기 생겨나던 1990년대까지 30년 동안 시가지 한가운데를 지나던 철길이 견히고 새로운 길들이 생겨났다. 1960년대 후반, 육거리부터 내덕7거리까지 간선도로라고 불리는 4차선 도로가 건설되었다. 당시 시민들은 "무슨 길을 이렇게 넓게 만들었다?"라 수근거렸고 시장은 큰 욕을 들었다.



1970년

사람은 태어나 여러 차례 집을 옮기거나 짓거나 하며 산다. 관청은 사람들 사이에, 그 중심지에 있다. 청주시청도 다르지 않아서 중앙공원 시대를 지나 북문로에 자리 잡더니,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하였다. 1960년대 말에 준공된 시청 건물 옥상에서는 특별한 경축행사 때에 폭죽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사진 속의 시청 건물은 당시 지어진 건물보다 한 층이 높아진 형태이다. 현재 청주시청은 신청사 건축과 더불어 청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다시 또 변화를 꿈꾼다.





1970년 시청 앞 도로



1972년 옛 제일학원(시청 건너편)



1966년



2021년

60년대 말까지 시청 주변에는 단층짜리 건물인 청주역사와 수동성당, 청주중, 주성초 건물이 큰 건물 속에 들었고 3층짜리 시청이 세워지면서 새 랜드마크가 되었다. 석탄하차장과 연탄공장이 있어서 탄가루로 인근이 온통 까맣다.





02 / 성안길 중앙로



Cheongju City



2021년



1994년 성안길 입구



1976년



2021년



1963년

청주에서 제일 번화했던 성안길 사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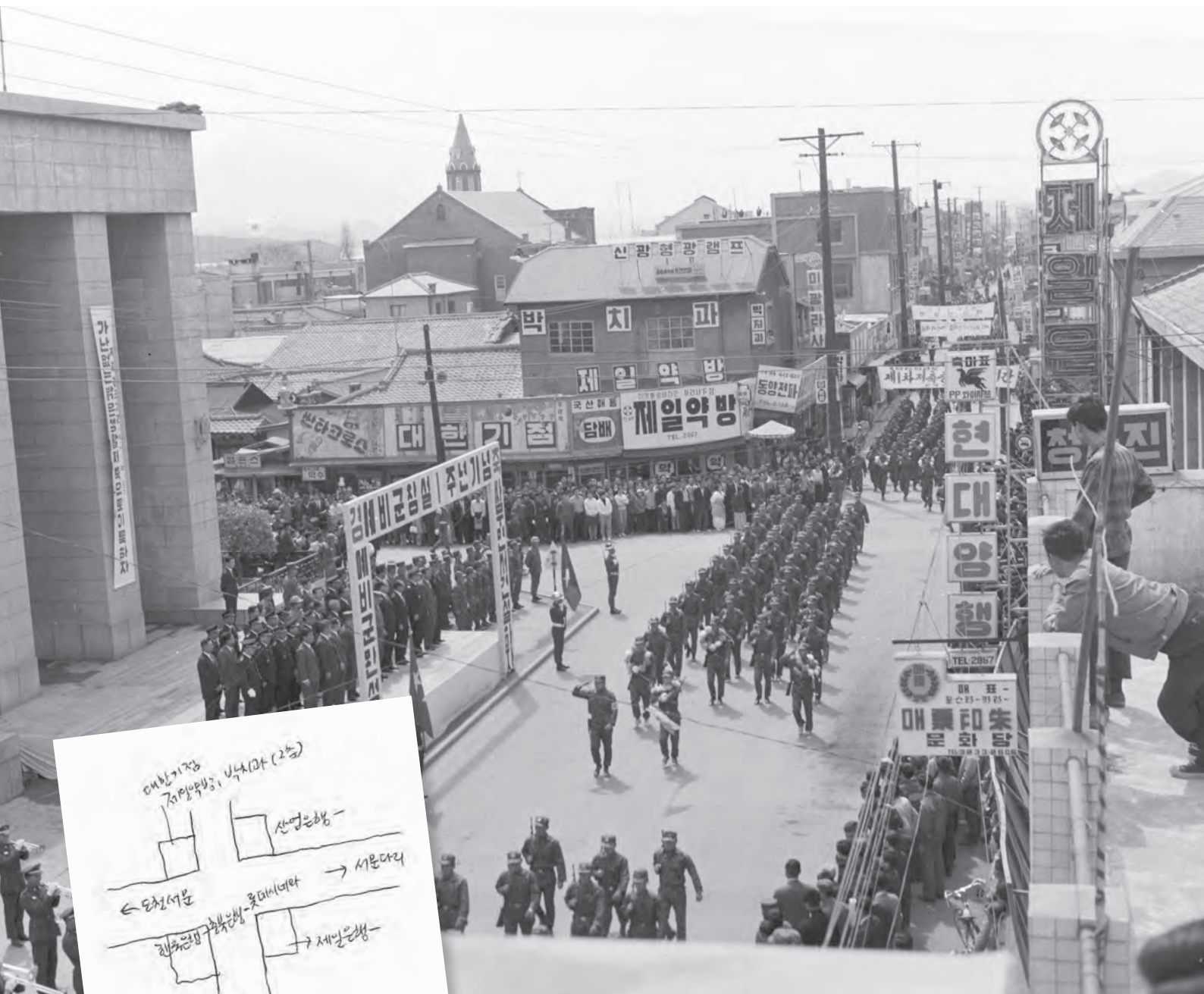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수동 청주여고 자리로 옮겨가고 제일약방은 4층으로 다시 지어 제일약국이 되고, 맞은편 산업은행은 뼈대는 두고 외장을 새롭게 꾸며 사용하고 있다.



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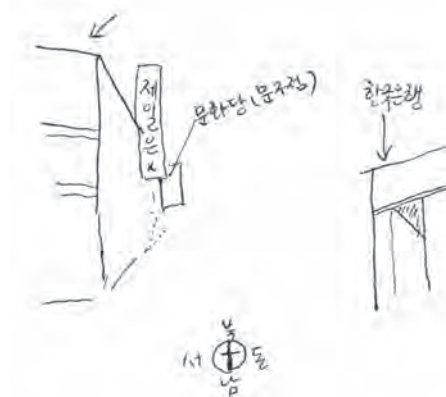
2021년



1969년 성안길(산업은행 사거리)



2021년 성안길(산업은행 사거리)



이곳 사거리에는 한 때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일은행이 모여있어서 충북의 금융중심지라고 했다. 인근에 도청, 경찰서, 소방서와 서문교회 등이 있는 성안길의 큰 중심지였다.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로 인파와 차량을 정리하기도 했던 변화가였다. 성안길을 달리던 시내버스와 교복입은 학생들이 넘치던 거리를 떠올려 본다.

1966년



1980년대



2021년



1993년



1960년대



2021년 성안길 청주시청 제2청사 사거리(우체국방향)

1993년까지 왜식 지명인 '본정통'을 써왔던 청주의 중심도로가
공모를 통해 '성안길'로 명명되면서 '언어의 식민지'를 겨우 벗어나게 되었다.



1974년



38 청주, 그곳 1974년



2021년 우리은행과 성안동 우체국 사이(시청방향)



03 / 옛 청주 경찰서



Cheongju City



1964년



2021년

일제는 조선시대 관아의 중심에 있던 망선루를 헐고 경찰서를 세웠다. 경찰서 부속건물로 무덕관, 유치장 등이 위압적으로 지어졌다. 많은 조선인들이 이곳에서 고초를 겪었다. 청주경찰서 터를 이전하면서 조선 시대 말까지 있었던 망선루를 이곳에 다시 세우는 운동이 있었다. 상업시설인 영화관과 쇼핑몰이 세워져 봉건시대에서 식민 제국주의시대를 거쳐 자본주의시대를 지나는 역사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곳이다.



2021년



1965년
옛 청주경찰서
(현 쥬네스 상가)



2000년



1966년



2021년 쥬네스 상가 앞 도로(도청방향)



1967년 옛 청주경찰서 앞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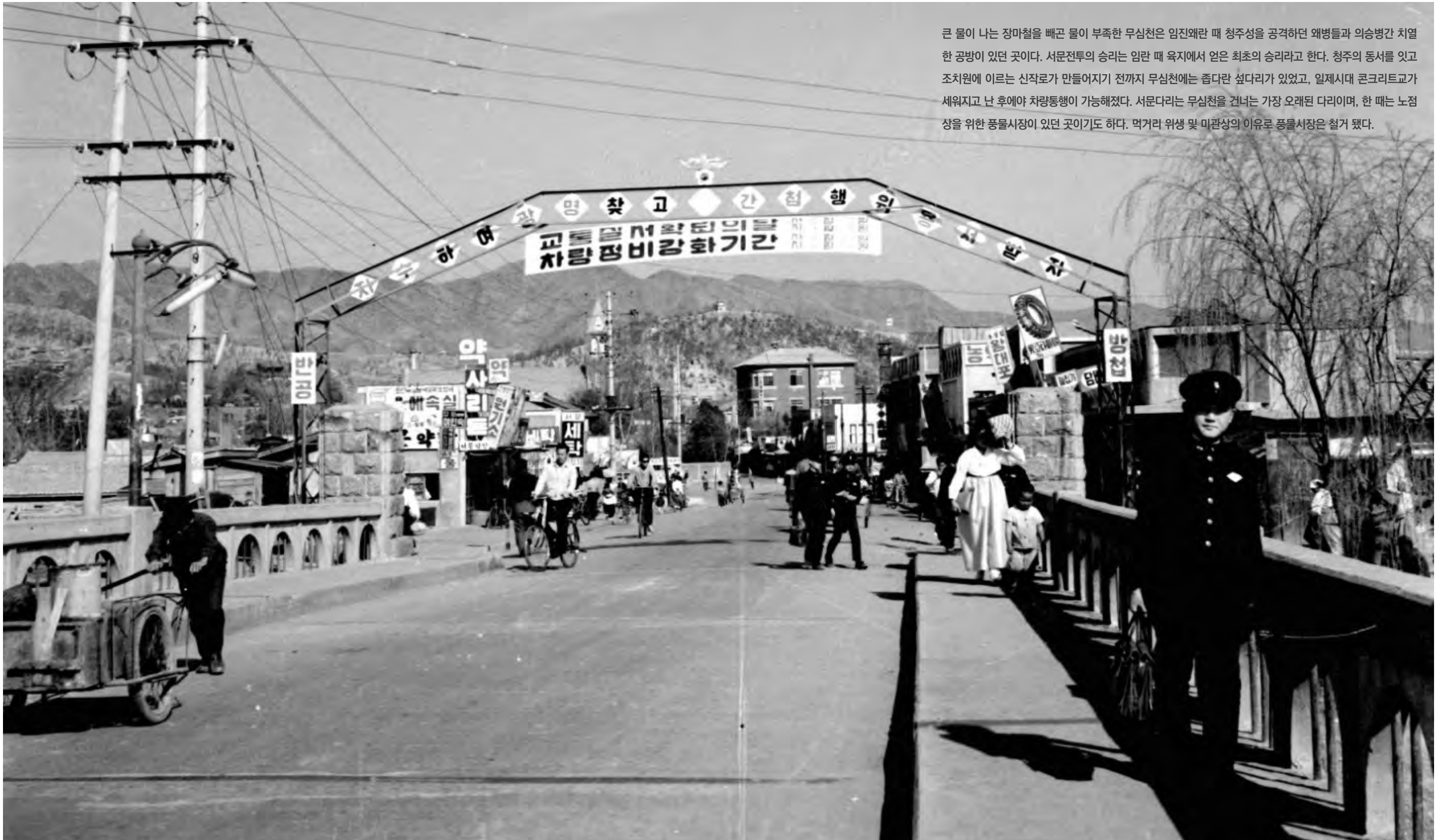
멀리 당산이 보이고 4층 청주경찰서가 보인다. 커다란 향나무가 있는 곳은 당시 대형교회였던 '서문교회'가 자리했던 곳이다. 교회는 봉명동으로 옮겨가고 국민연금건물이 세워졌다. 이 길로 시내버스가 다녔다.



04 / 청주대교 서문교



Cheongju City



큰 물이 나는 장마철을 빼곤 물이 부족한 무심천은 임진왜란 때 청주성을 공격하던 왜병들과 의승병간 치열한 공방이 있던 곳이다. 서문전투의 승리는 임란 때 육지에서 얻은 최초의 승리라고 한다. 청주의 동서를 잇고 조치원에 이르는 신작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무심천에는 좁다란 썰다리가 있었고, 일제시대 콘크리트교가 세워지고 난 후에야 차량통행이 가능해졌다. 서문다리는 무심천을 건너는 가장 오래된 다리이며, 한 때는 노점상을 위한 풍물시장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먹거리 위생 및 미관상의 이유로 풍물시장은 철거 됐다.

1950년



1969년



19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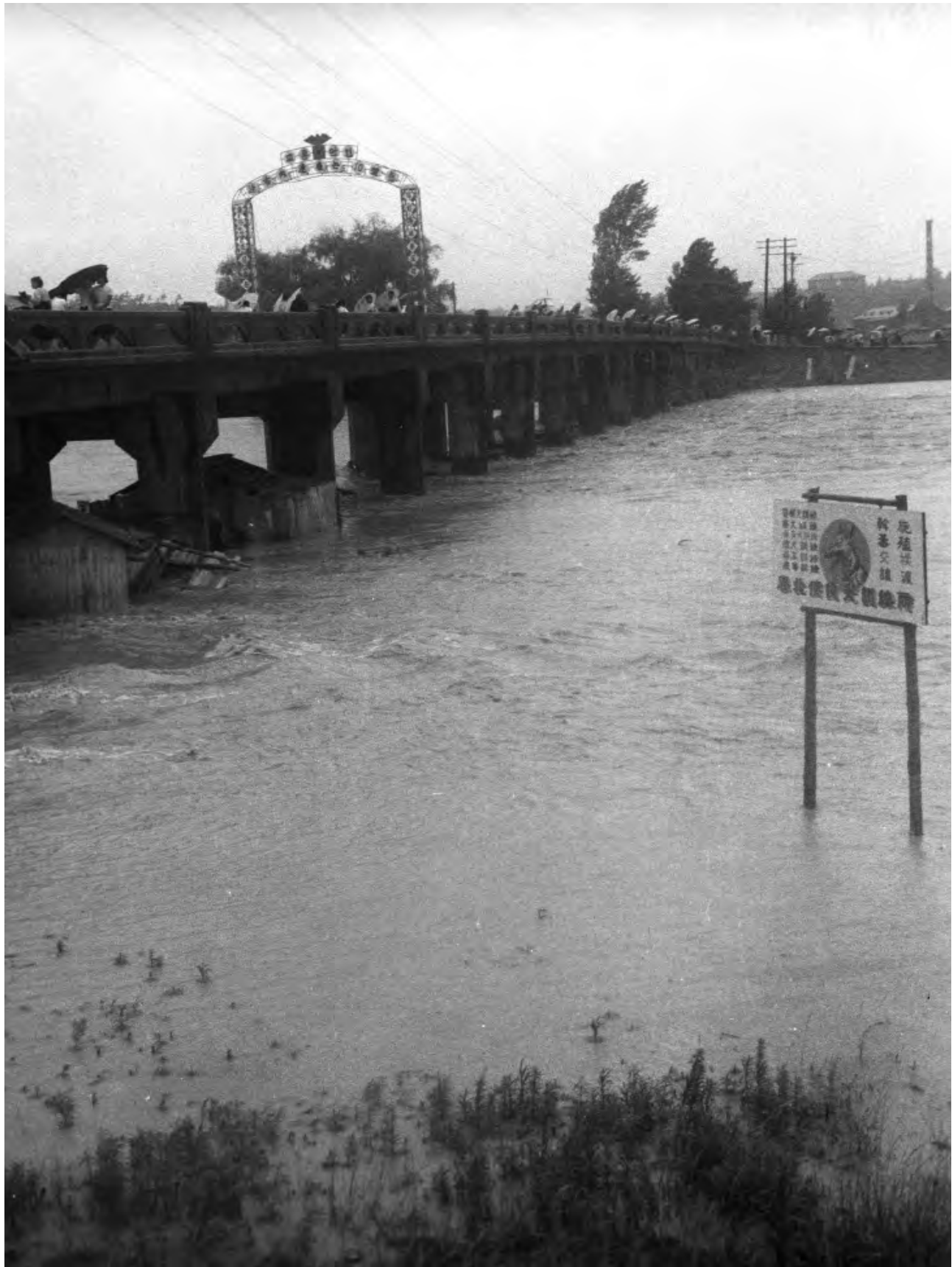
70년대까지 서문다리 동쪽 편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기에 늘 인파로 붐비던 곳으로 서문시장은 육거리시장보다 규모가 컸던 충북 제일의 시장이었다.



2002년



2021년







2001년

옆의 청주대교와 달리 서문대교는 예전의 차가 오가던 모습은 잊혀지고, 현재 도보 통행만이 가능하다.



2021년



2021년



1988년



1997년

무심천에 세워진 첫 번째 철도교가 헐리고 청주대교가 세워졌다. 1968년 철도 직선화 사업으로 충북선의 청주역이 북문로에서 우암동 구 문화방송 자리로 옮겨짐으로써 그 자리에 건설된 다리이다.



2021년



1970년



1999년



1999년



2021년

청주대교 동북모퉁이(무심동로)에 자리했던 충북은행 본점건물도 세월따라 이름은 사라지고 건물(현재 신한은행)만 남았다. 청주대교는 청주서부에서 도심으로 통하는 도심의 관문교량으로써 1990년대 이후 점차 교통량이 많아졌으며, 예나 지금이나 시민들로 붐비며 활기가 넘치는 곳이다.



2021년

길건너 남쪽 서문동에는 전국에서 오가는 버스로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다가 가경동으로 이전하면서 홈플러스 유통시설이 자리 잡았다.



05 / 상당공원



Cheongju City



현재 상당공원에는 도민헌장탑, 4·19기념탑, 한봉수 의병장 동상과 오래된 메타세콰이아, 은행나무가 서있다. 충청북도청을 비롯하여 관공서와 상가, 그리고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청주시민들이 찾는 휴식공간이다. 공원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휴식과 운동을 겸할 수 있도록 농구대와 벤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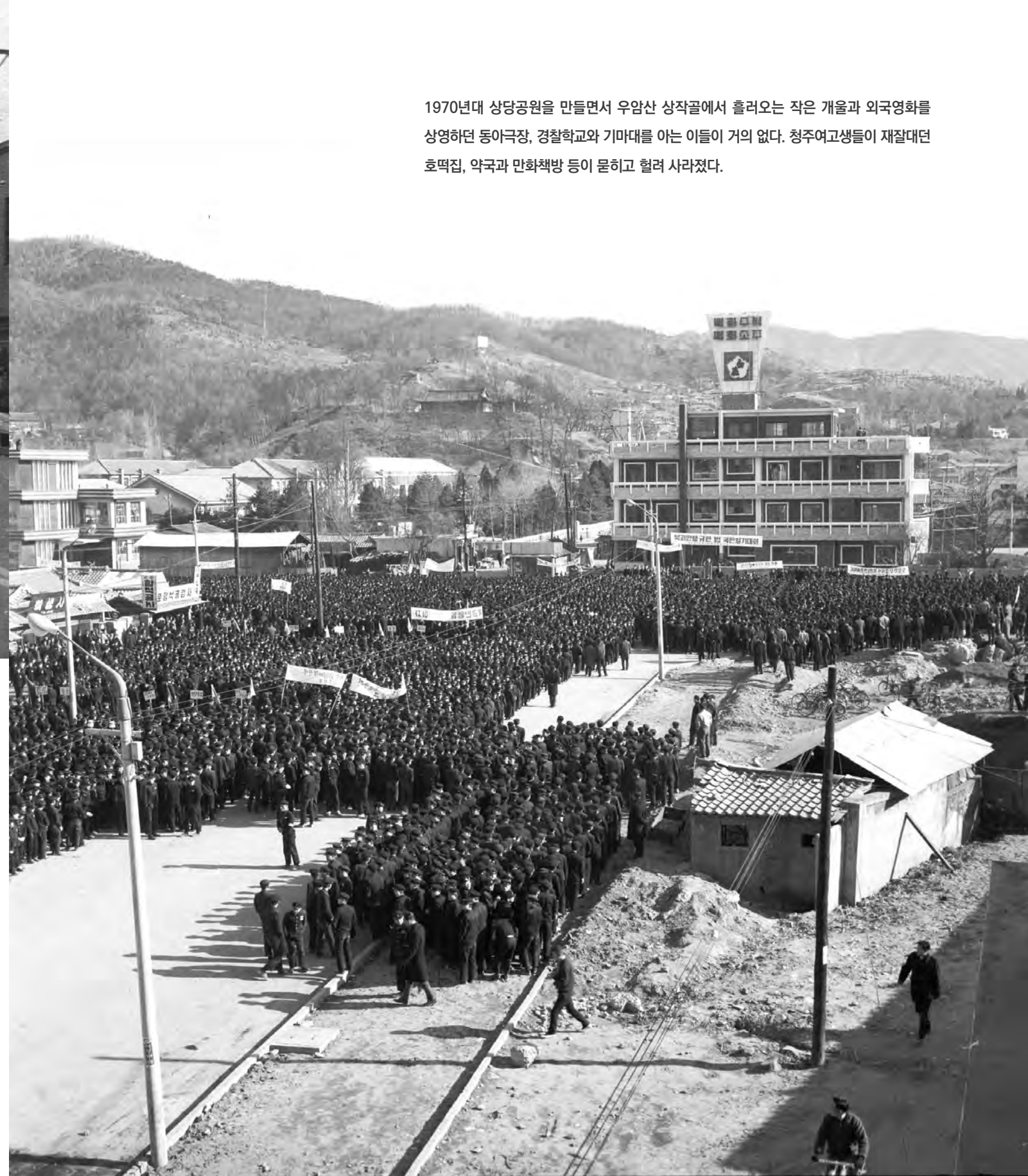
2021년



2021년



1973년 철거전 금수장 앞(현 상당공원)



1970년대 상당공원을 만들면서 우암산 상작골에서 흘러오는 작은 개울과 외국영화를 상영하던 동아극장, 경찰학교와 기마대를 아는 이들이 거의 없다. 청주여고생들이 재잘대던 호떡집, 약국과 만화책방 등이 묻히고 헐려 사라졌다.

1970년



1975년 상당공원 사거리



2021년 상당공원 사거리



1970년 사직대로(상당공원에서 사직동 방향)



1974년 사직대로(정면에 보이는 금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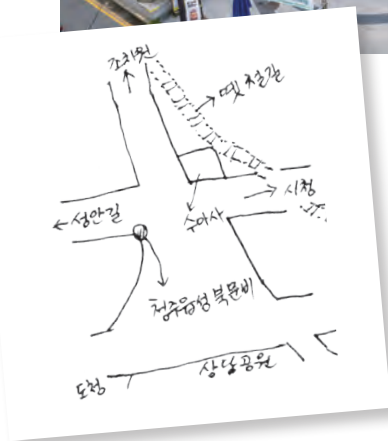
2021년



2021년 사직대로(상당공원에서 사직동 방향)



2021년





1977년 사직대로(현 홈플러스 성안점 건너편)



2021년



1970년



1970년 상당로(상당공원 사거리 시청방향)



1978년



2021년 상당로(상당공원 사거리 시청방향)

상당공원 앞 상공회의소 거리에 70년대 초 지하도가 생겼다. 80년 초에는 중앙시장 입구에 육교까지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지하로, 육교로 길을 건넜다. 고도 산업화 시대, 차량우선 문화가 이즈음부터 시작되었다.



06 / 남문로 우리은행



Cheongju City



2021년

충북에서 가장 비싼 땅 값으로 알려진 곳이다. 지금 이곳에 우리은행이 들어가기 전에는 상업은행이 있었다.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였지만 세월의 힘은 시나브로 은행의 이름들을 사라지게 한다. 상업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신탁은행 등은 모두 이곳 성안길에 있던 은행의 이름이다.



2021년

1970년대 옛 한일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자리가 현재 유니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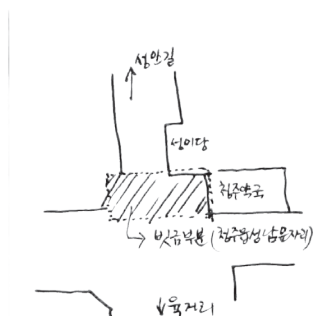
1995년 상업은행(현 우리은행)



2021년 우리은행 청주지점 앞(우체국 방향)



07 / 청주약국



Cheongju City



1967년



1970년



1996년



2021년



청주약국 사거리에 청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 알림탑이 서있다. 1964년 8월 무더위에 연탄 리어카를 끄는 시민과 런닝셔츠의 아이들이 보인다.



1962년 조흥은행 청주지점(현 신한은행 청주지점)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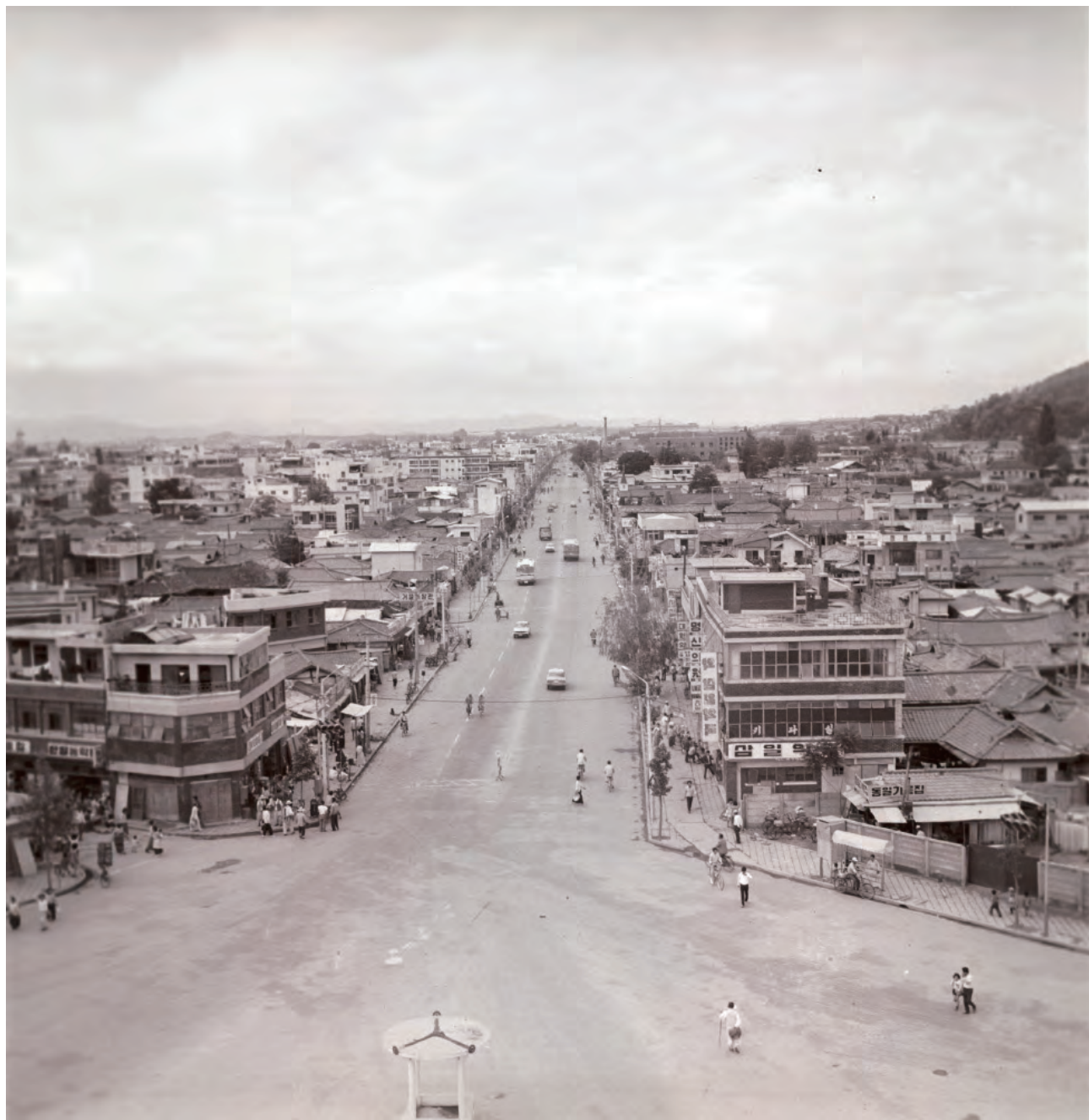
2021년



08 육거리



Cheongju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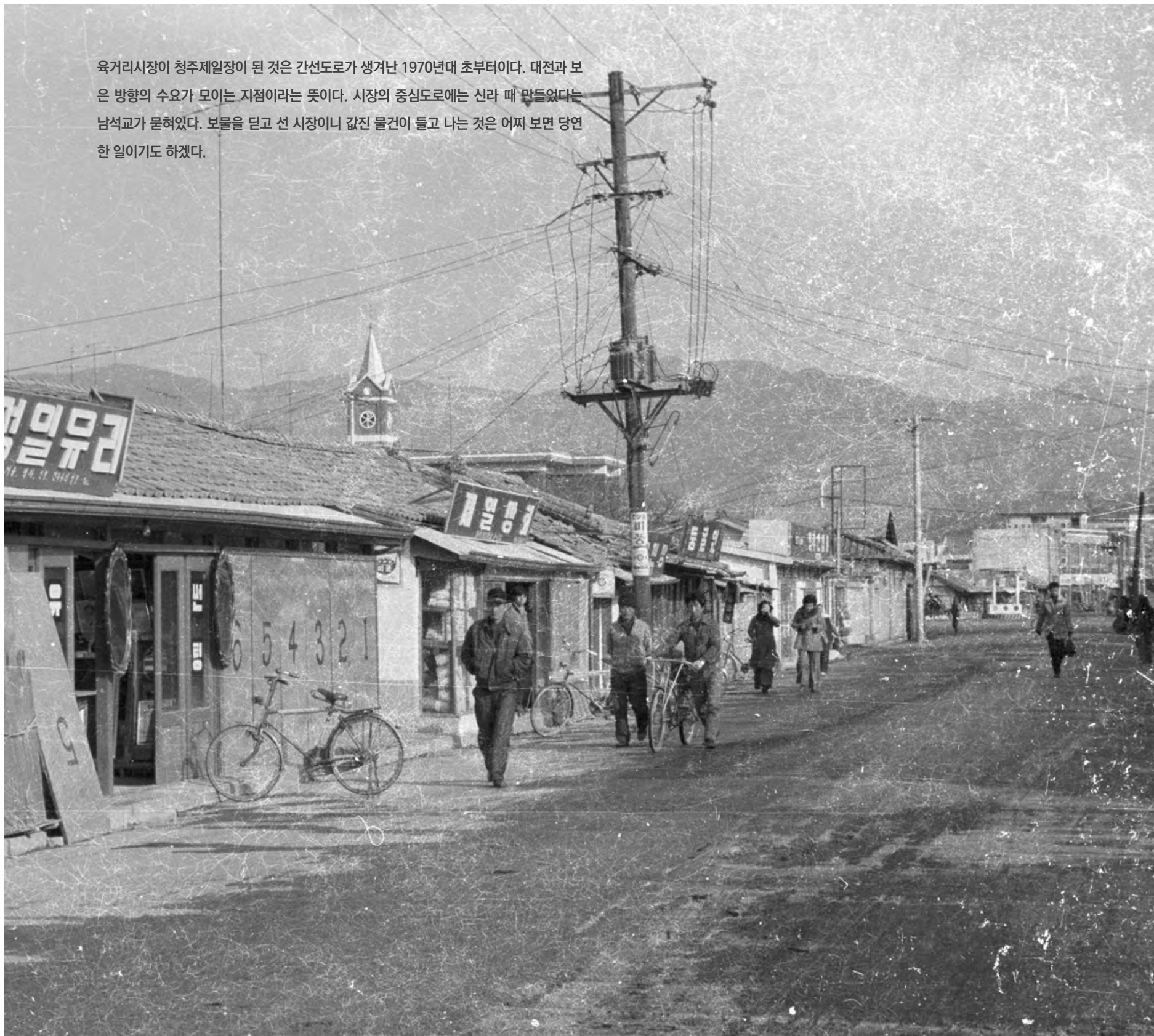


1973년 육거리(상당공원 방향)



1995년 육거리(상당공원 방향)

육거리시장이 청주제일장이 된 것은 간선도로가 생겨난 1970년대 초부터이다. 대전과 보은 방향의 수요가 모이는 자점이라는 뜻이다. 시장의 중심도로에는 신라 때 만들었다는 남석교가 묻혀있다. 보물을 싣고 선 시장이니 값진 물건이 들고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다.



1970년 육거리 시장(멀리 보이는 서운동 성당)



1999년



2002년



1976년



2021년



육거리는 자동차도로 4개와 시장골목길 2개를 더해 6거리가 되었다.
신탄진, 밤고개, 영운동, 일신여고 쪽으로 가는 네 개의 길과 시장이 선
두 개의 골목이다.



1976년 꽃다리



2021년 꽃다리



1976년 대신정기화물(구 남궁병원 사거리)



2021년 대신택배(구 남궁병원 사거리)

구 남궁병원 사거리라고 불리는 이곳도 변모를 거듭해서 탑동으로 가는 길가엔 고층아파트가 세워졌고,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 청주의 진산 우암산의 키가 작아진 느낌이다. 대신정기화물의 화물집하장은 길이 나면서 웅색해졌다.



2021년



1995년



2021년



2021년

꽃다리 남쪽 수곡동은 큰 벌판으로 논밭 가운데 교육대학교가 신탄진으로 가는 길가에 외롭게 서 있었고 서쪽 모충동에 운호학원(서원학원)이 청주여자사범대학, 신라여중, 청주여상, 운호중, 운호고를 세우면서 교육타운이 되었다. 멀리 보이는 분평동아파트단지도 벼가 넘실거리는 논이 변해서 생겨났다.

1979년 육거리에서 본 운호학원



09 / 철강간과 그 주변



Cheongju City



1970년대

청주시 남문로2가는 백화점, 은행, 극장, 서점 등이 들어선 변화가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이곳에 용두사라는 큰 절이 있었고 그때의 유적으로 철당간이 높이 솟아 있다. 이 당간은 우리나라에 몇 남아 있지 않은 당간 중 가장 보존상태가 좋다. 원래는 철통 서른 개가 중첩되어 있었는데 흥선대원군 시절 경복궁 중간에 쓰느라 열 개를 헐어갔다는 말이 전해온다.

당이란 절의 입구나 법당 앞에 내다거는 일종의 깃발이다. 당간은 보통 돌로 된 지주를 맞세우고 그 사이에 끼워 세우며 재료로는 돌이나 쇠, 나무 등이 사용되었다. 신라와 고려시대를 통해 수많은 절이 건립되고 당간이 설치되었지만 지금은 대개 돌로 된 지주만 남아 있고 당간은 보기 드물다. 남은 당간 중 용두사터의 철당간은 건립연대를 알리는 명문이 있어 국보 제41호로 지정되었다.



1993년





1960년 현대극장(구 롯데 영플라자)



1970년 청주극장(현 우리문고)



1995년

철당간을 중심으로 펼쳐진 넓은 광장에서는 노래경연, 풍물놀이 등 시민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수시로 열렸다.



1960년



1972년 청주극장
(현 우리문고)



1993년 진로백화점



2021년

당간 주위에 있던 청주극장과 현대극장은 사라지고 서점(우리문고)과 백화점(구 롯데 영플라자)이 되기도 했다.
고려시대 만들어진 이 당간은 청주의 대표 자랑거리이면서 청주도심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온 '문화재 지킴이'이기도 하다.



1987년



1993년



10 / 중앙시장과
청소년광장





2021년



2021년

커다랗게 무대가 된 광장에는 중앙극장과 군만두가 유명했던 극동반점, 사진관과 양장점이 있었고, 70년대 말까지 미국 평화봉사단 수련소로 쓰던 여관(대림장)도 있다.



1961년 중앙극장(현 청소년광장)



2000년 중앙극장(현 청소년광장)



2021년

청주역과 가장 가까운 시장으로 1970년대 청주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 두 동이 세워졌다. 준비하게 들어선 고서점에는 교육도시 청주를 상징하듯 가난한 학생들이 찾아 들었다. 공영목욕탕으로 세워졌던 '청주시영목욕탕'도 이곳에 있었다.



2021년



1992년



1992년



11 / 옛 청주역



Cheongju City

기차가 서는 곳이 역이다. 서문다리 옆 철교를 지나고 수아사 뒷 편 두 곳의 건널목을 지나면 느릿한 기차는 청주역에 이른다. 1921년 11월 1일 조치원과 충북선 개통에 따라 최초 청주역이 개통되었다. 그 후 1923년 5월 1일 청주에서 증평, 1928년 증평에서 충주까지 연장 운행되면서 충북선 철도는 청주를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개통 당시 청주역 광장은 청주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인 동시에 각종 행사장 역할을 하였으며, 역 주변은 기차 이용객뿐만 아니라 상인과 운반업 종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던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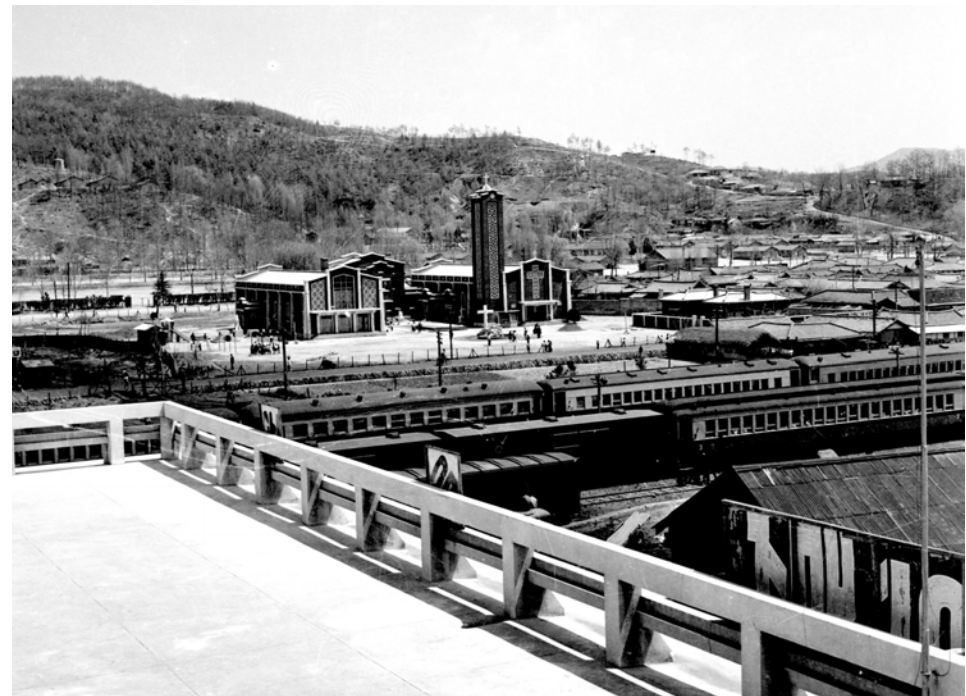




1968년 옛 청주역 철길



1968년 옛 청주역 철길



1960년대 시청 옥상에서 본 수동성당



2021년 시청 옥상에서 본 수동성당

수동성당 뒷편 우암산 자락에 23육군병원이 60년 초까지 있었다. 주성중학교 남쪽으로 청주 최초 도시계획된 주거단지가 만들어졌다. 이 때 청주시장 관사와 번듯한 이층양옥들이 들어서서 청주의 명당으로 불린 적도 있었다. 지금은 시장관사를 비우고 '김수현문학관'으로 거듭났다.



2021년



2021년



1960년대

청주역은 성안길의 인구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968년 11월 7일 우암동으로 옮겨졌다. 청주역이 우암동으로 옮겨지며 기차길과 역이 사라지면서 역광장, 역전파출소, 운송회사, 여관과 많은 짜장면집들이 사라졌고, 현재 이곳에 광장과 전시관이 세워졌으며, 전시관 옆에는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가 들어섰다.



1970년



2021년

‘역전’의 건물들

서점, 세탁소, 분식집과 대한통운의 창고로 쓰였던 건물들은
지붕을 고치고 페인트로 단장해서 장보네마트, 파배기집으로 쓰고 있다.



12 / 중앙공원 일대



Cheongju City



1970년

현청 등 관아시설이 있던 곳을 중앙공원으로 바꿔 부른 때는 일제 강점기이다. 도청과 KBS, 유치원, 도서관이 중앙공원 시대를 거쳐갔다. 1000년 세월을 지켜 본 압각수는 지금껏 늠름하다.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고려, 조선시대의 관아 건물이 있던 청주의 중심이며, 산실(産室) 같은 곳이다. 시청, 도청, 시민회관, 문화원, 시립유치원, 도서관, 놀이터, 방송국 등이 이곳 중앙공원 시대를 거쳐갔다.



①



②



③



④

- ① 1960년 청주시립유치원
- ② 1917년 충북도청
- ③ 1960년 청주방송국
- ④ 1978년 서원노인회충청북도분회



중앙공원에는 어린이를 위한 중앙어린이놀이터가 지어지기도 하고, 사생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1979년



1975년



1986년



1969년



1971년



1944년



1969년

2000년 이전까지 어린이, 학생, 젊은이들의 공간이었다가 이곳 중앙에 자리한 압각수처럼 세월따라 늙어가는지 이제는 내기장기, 윷놀이 하는 노인들로 가득하다. 압각수에 기대어 졸업사진을 찍었던 이들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2021년





2021년 중앙공원 망선루



2021년 중앙공원 망선루

망선루는 본래 청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로 취경루라 하였으며 고려시대 관아의 부속 누정으로 세워졌다고 한다. 현재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0호이다. 1922년 일제강점기의 무덕전 신축으로 망선루가 헐리게 되자 청주 청년회 회장이던 김태희를 중심으로 망선루 보존운동을 전개하여 1923년 제일교회(당시 청주읍교회)에 옮겨 세웠다. 옮긴 망선루는 청주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인 청남학교와 청신여학교, 상당유치원 등 교실로 사용되었고, 민족교육운동과 한글강습, 각종 집회 및 강연장으로 활용되었다. 해방 후에는 세광중고등학교가 이곳에서 탄생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망선루가 낡아 무너질 위험이 있어 1999년 10월 이 건물을 해체하여 2000년 12월 옛 충청도병마절도사영터인 현재의 중앙공원으로 옮겨세웠다.



2021년



시립도서관(현 청주예총)



2021년



1974년

학생들이 공부하던 도서관이 건립되면서 2000년 전까지 청주시 내에 변변한 전시공간이나 공연장이 없던 시절에 학생들의 미술작품 전시회, 시화전, 독서실, 연극공연 공간 등의 문화공간으로 충실했던 곳이다. 좌판을 깔고 이 건물 담장에 기대어 신수점을 쳐주던 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13 / 충북도청



Cheongju City



1972년



1973년

충북도청은 1937년에 중앙공원에서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다. 당산공원(동공원) 아래에 있던 커다란 문화동 연꽃 저수지(잉어배미)를 메우고 2년 공사 끝에 준공된 2층 콘트리트 건물은 당시 청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기도 했다. 현재의 위치로 도청을 옮겨 지으면서 이곳은 충청북도 행정 중심지가 되었으며, 멀리서 도청에 다녀가는 손님과 관리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도청 주변에 많았다.



2021년



1970년



1970년 충북도청 앞 도로



1971년 충북도청(정문방향)



2021년 충북도청 앞 도로



2021년 충북도청(정문방향)



1971년 충북도청 사거리



1971년 충북도청 사거리



2021년 충북도청 사거리



2021년



1971년



1960년 충북도청 사거리(육거리방향)



1971년 충북도청 사거리(육거리방향)



2021년



2021년



14 / 우암동





1971년 우암초등학교 앞 도로



1970년대 삼미파전 골목



2021년 우암초등학교 앞 도로

석교초부터 북쪽 청주대까지 대성로길이다. 대성로는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학교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다. 청주대학교, 대성고등학교, 대성초등학교, 대성여중, 대성여고가 있다. 청주대학교 정문 남쪽에는 세계적 도자기 브랜드 '한국도자기'의 첫 공장이 있었다. 대학의 서쪽 큰 길 건너에는 청도극장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운영 중인 삼미파전이 있다.



2021년 삼미파전 골목



1970년 옛 삼화이비인후과



1971년 향군로(구 한국전력)



2021년 향군로(구 한국전력)



15 / 내덕동





1972년 내덕동 성당 앞 도로



1978년 내덕동 성당 앞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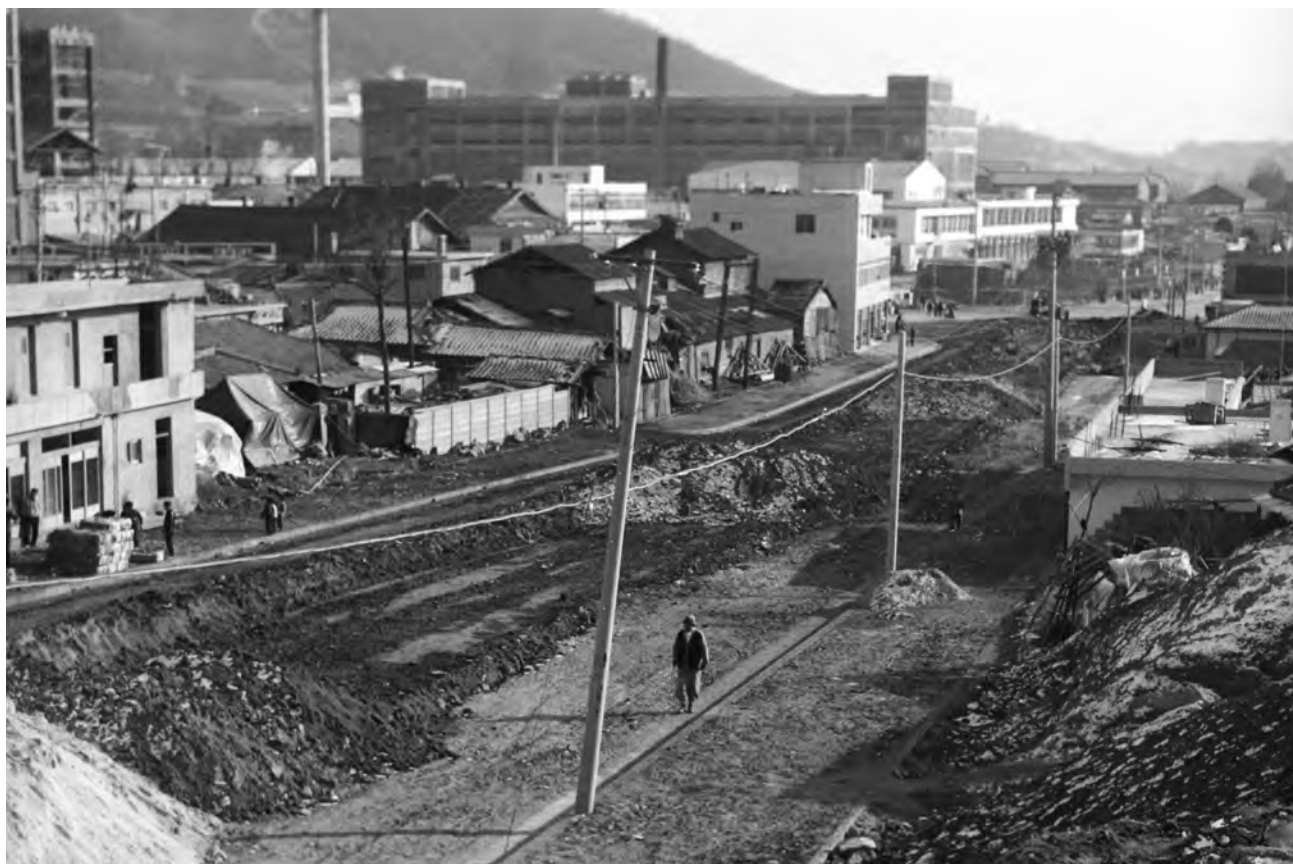
밤고개는 진천나들목, 충주나들목으로 갈라지는 곳의 낮은 고개이다. 신흥제분공장과 연초공장이 사직동 남한제사와 함께 청주 경제를 이끌던 곳으로 번성했던 지역이다. 청주농고가 거대한 학교부지를 자랑하며 자리 잡고 있는데 충북농과대학이 여기서 탄생하고 개신동으로 이전, 충북대학교가 되었다.



2021년 내덕칠거리 충주 방면



1972년 내덕동 칠거리



1974년 내덕동 성당 앞 도로

내덕동의 옛 이름은 안딿벌이다.

연초공장, 신흥제분, 청주농고, 내덕성당이 이곳의 상징이었다. 밭고개로 불리던 율량 질구지, 사똌으로 불렸던 낮은 구릉들이 이제는 주택지로 변했다. 율량동은 율봉역과 양지뜸의 합성어이다.



2021년 안덕벌에서 본 문화제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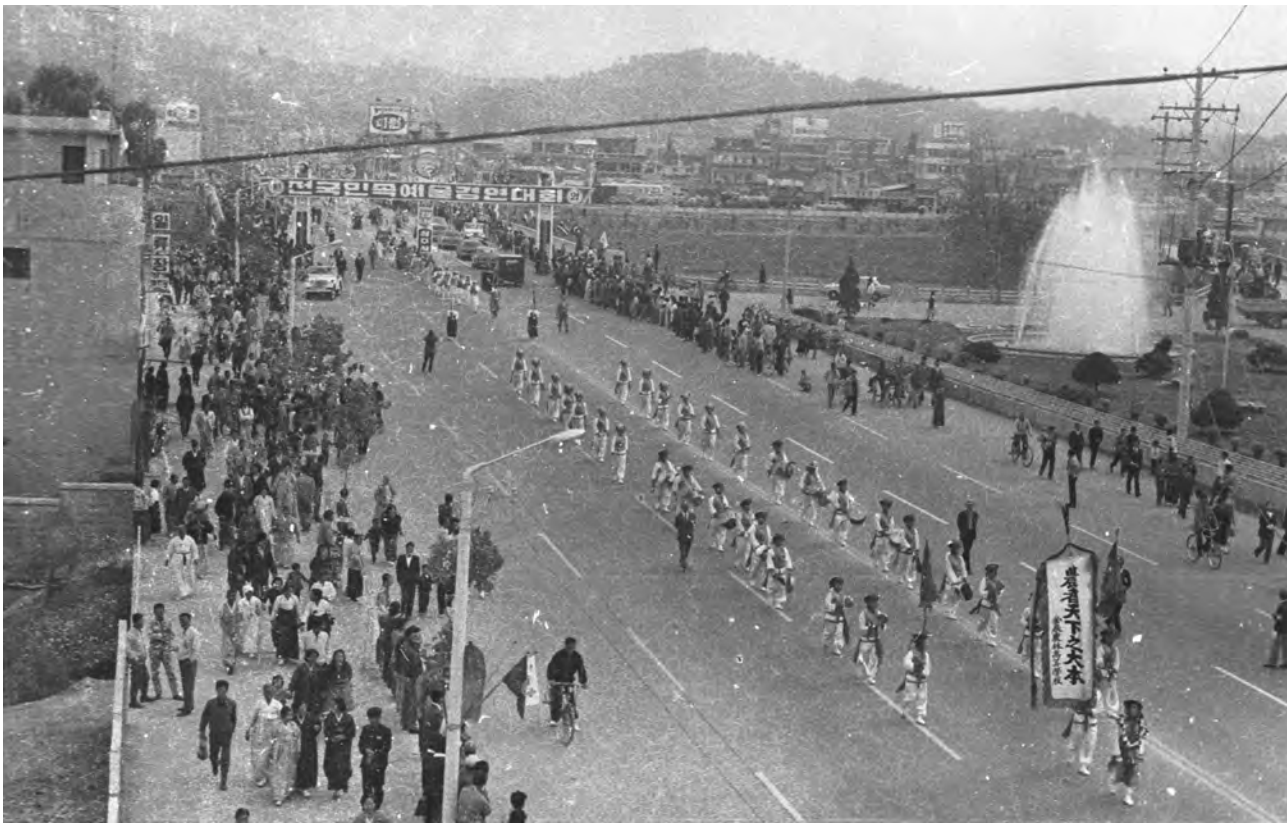


16 / 시작동





2021년 청주대교(사직동 분수대)



1970년 청주대교(사직동 분수대)



1977년 사직동 분수대 앞(사창동 방향)



2021년 청주시립미술관(구 KBS 청주방송국)



2021년 사진대로



1978년 KBS 청주방송국(현 청주시립미술관)



1974년 사진대로



1970년 임흥상회자리가 사직동 농협(전 축협)
전신주 왼쪽으로 변전소 방향, 멀리 남한강산 골목이 보인다.



1979년

사직동은 남한제사와 시외버스터미널, 체육관, 청주여중, 한별초등학교, KBS, CJB 방송국, 충훈탑, 중앙도서관으로 기억되는 곳이다. KBS가 외곽으로 이전하고 재개발을 눈앞에 둔 오래된 동네가 되었다. 시계탑까지 오르막인 내수동고개 이름도 아득하다.



2021년 청주 종합운동장, 청주실내체육관



청주, 그 곳
Cheongju City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청주시
발행처 청주시 공보관

사진 과거 청주시, 충청북도
현재 이재복
글 윤석위

제작 아트랩463